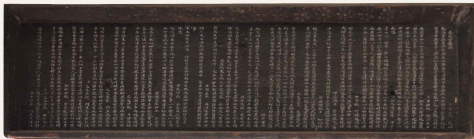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

17세기경·김상응(金尙容)·정엄(鄭暉)·조익(趙翊)·소광진(蘇光震)·이단하(李端夏)·심광세(沈光世)·

홍천경(洪千環)·신흥(申欽)·황혁(黃赫)·임숙영(任叔英)·권진기(權盡己)·김상헌(金尙憲)·

이정귀(李廷龜)·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김지남(金正男)·양경우(梁慶遇) 지름_45.0×120.0cm



「양성당제영」은 본래 돈암서원의 연혁과 양성당 창건기록, 국내 명사들의 시문 등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1636년(인조 14)에 김장생의 막내 아들인 김비가 후세에 제영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만든 것이다. 내용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전계조어」, 「후율탁축」, 「계룡방음」, 「대둔심승」, 「매소명월」, 「죽오청풍」, 「연지취우」, 「유정취원」, 「형사담경」, 「임정관덕」 등을 실고 있다. 원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돈암서원 내에 있는 「양성당제영」은 갑진(甲辰)년에 구봉(龜峯)이 새겨서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책자와 동일하되 시제(詩題)는 없다.

養性堂題詠 甲辰孟春 龜峰

亂後重新舊草亭 歸來心跡喜雙清 閑中至樂無人共 獨向溪邊步晚晴

芙蓉千朵淨亭亭 露滴疏簾鶴夢清 莫道靜中迎接少 亂山無數送新晴

辛丑仲秋 仙源居士

無限雲山奉小亭 隔林溪響枕邊清 寒松翠竹陰陰地 十里明沙晚雨晴

圓荷出水碧亭亭 風動新香鏡裏清 盡日紫門無客子 白鷺雙下晚沙晴

世道紛紛亂劇繩 斯文餘脈渺無承 荒涼花石【栗谷亭名】思遺蹟 寥落沙溪恨

曲肱 病榻偷閑探月窟 危途持戒踏春冰 南溟北極三千里 多少離情一札憑

癸卯錦陽望後 守夢

青山隱隱樹亭亭 步入禪樓眺望清 浮世茲遊真一幸 不妨呼酒賦新晴
萬山明月一孤亭 偏愛疎櫺夜氣清 讀了殘編無箇事 有時濡翰課陰晴
幽居南隔八長亭 人與琴詩一味清 未卜山陰乘興日 瘴江秋雨幾時晴
二年人在醉翁亭 山自高高水自清 料得此閒真樂在 一樽相對賞秋晴

甲辰秋 可畦趙弼稿

模範千年仰考亭 新篇養性擬心清 誰知世路多風雨 還有山中一面晴
爲掃遺墟構小亭 一區天地景增清 百年俯仰還無作 長對青山看晚晴

甲辰秋日 晉山蘇光震

沙溪西畔晚安亭 養性年來水更清 爲問偷閑何事業 尋花隨柳趁春晴

甲辰閉關日 松礪稿

棲息由來足一亭 暮年心跡喜雙清 鳶魚天地看飛躍 雲淡風輕好是晴
群峯削立玉亭亭 象外幽居景物清 活水方塘開一鑑 天光雲影媚新晴

乙巳暮夏 後學沈光世

昔宋諸賢屈郡州 相傳正脉屬東廬 天開栗谷浮雲日 月照牛溪寒水秋
塢屋老儒非異道 禮家先覺許同流 一心北面輕千里 分子南歸又萬愁
西風倍憶老坡州 渺渺晨星天一陬 孤雁南翔先落木 封書北寄更悲秋
自非驚世無雙丑 幸托匡時第一流 來訪仲容金馬郡 相逢卽別使人愁

洪千環稿

投綬歸來結野亭 暮年生活是雙清 從今不管人間事 唯對村農校雨晴
尋幽多上水心亭 雲影天光一樣清 試棹小舟沙渚泊 映林疏雨未全晴

丙午殘脫 象村陳紳

養性養花非二法 吾友取譬貴通方 清江學士菟裘地 泛老名公翰墨場

詩句向來同塞馬 園林亂後捨亡羊 聞君揚扁重修計 千里相思路阻長
萬曆紀元白狗之白龍既望 長水後人黃燠稿

窮而在下其學明 此言何謂謂先生 西銘太極圖張處 濂洛諸賢相對情
壬戌孟冬 西河後學任叔英

幡然來又浩然歸 秋滿鄉園逸興飛 聖主卽今虛席待 莫教郵騎潛林扉
平生師友有淵源 經幄書筵合計論 此去休爲長往計 驛程行色是殊思
癸亥仲秋 永嘉後人權盡己

投絃歸來水上亭 洗心孤坐不勝清 閑看造物還多事 一日陰交一日晴
山下溪流溪上亭 夾溪沙白映溪清 溪邊愛聽溪聲坐 溪月初生溪雨晴
崇禎戊辰仲冬 金尚憲

萬卷牙籤一草亭 老人生理十分清 研朱點易無餘事 手拓秋窓賞晚晴
養吾之性以名亭 便覺靈臺些滓清 風詠冠童浴歸路 晚花幽草屬春晴
山靜幽禽啼近亭 晚涼軟枕竹風清 田家政待催花雨 多事鳴鳩莫喚晴
己巳秋秋 月沙拜稿

頭白歸來溪上亭 箇中身事有餘清 琴書滿眼翻成倦 暫向林園賞小晴
獨窮今古掩茅亭 更有溪山分外清 若問閑中得意處 明窓棐几對新晴
己巳暮春 門生德水張維

竹掩疎籬芽覆亭 國書四群有餘清 春來好雨雲時物 愛聽山禽晴晚晴
百年樓息此林亭 亭下溪山對案清 試向靜中觀物化 幾番風雨造陰晴
己巳暮秋 門生烏川鄭弘溟

溪畔山前一草亭 亭中人似玉壺清 荷塘竹逕徘徊處 更倚明窓看晚晴

讀罷古書池上亭 滿亭秋氣襲人清 灘響雲容前夜雨 竹陰松影此山晴

癸卯秒秋 宗末龍溪金止男

想像幽居忽默然 五更殘夢拜床前 詩題癸卯驚重看 書日沙溪喜遠傳

負笈追隨空宿計 叩門參訪定何年 惟應昨夜中秋月 分占清光共不眠

崇禎己巳仲秋 止男又呈

園林選勝結孤亭 仰月炯風特地清 最是牢籠佳景在 鷄籠秀色樣新晴

庚午仲春 門生梁慶遇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

갑자년(甲子年) 맹춘(孟春, 1월) 구봉(龜峯)

전란 지낸 후에 옛 초가정자를 거듭 새롭게 만들어

고향에 돌아오니 마음이 기쁘기 한량없고 또한 맑아지네

한가한 중에 이 즐거움 함께할 사람 없으니

맑게 갠 저녁 무렵에 홀로 시냇가를 거니네

부용꽃 천 송이 곱고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이슬이 성긴 대숲에 떨어지니 학의 꿈이 맑구나

고요한 가운데 영접할 이가 적다고 말하지 마오

여지러운 산들에 날 개이기 바라는 마음만 섬없이 보내네

신축(辛丑, 1601, 선조 34) 중추(仲秋, 8월) 선원거사(仙源居士) 김상용(金尙容)

(金尙容, 『仙源遺稿』 上, 七言絕句, 「次韻奉呈希元尊兄」.)

끝이 없이 구름 깎 산이 작은 정자를 받들고 있으나

숲에 가려진 시냇물 소리 베갯머리를 맑게 하네

찬 소나무와 푸른 대숲이 땅에 그늘을 드리우니

맑은 모래 십리 길에 저녁 무렵 날씨 개이네

등근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와 우뚝우뚝 푸른데
바람에 실려오는 새 향기가 거울속에 맑구나
온종일 사립문에 찾아오는 손님 없고
흰 갈매기 한 쌍이 비 갠 해질녘 모래밭에 내려오네

세상 다스리는 도리가 헝크리진 실보다 어지러운데
사문의 남은 명맥을 아득히도 이을 자가 없네
황량한 화석정(花石亭)【파주 울곡의 정자 이름】의 남은 자취를 생각하고
쏟아진 팔베개 베고 자는 사계선생을 떠올리네

병상에서 한가함을 내어 음양의 이치를 탐구하고
위태로운 세상길은 봄 열음을 밟듯이 조심하네
남쪽 큰바다와 북극은 삼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헤어져 애뒀한 정을 편지 한 통에 담아 따우네
계묘(癸卯, 1603, 선조 36) 단오의 망후에 수몽(守夢) 정엄(鄭堧)
(鄭堧, 『守夢集』 卷1, 七言律詩, 「寄金典簿希元丈」.)

푸른 산은 아스라하고 수목은 우뚝우뚝한데
절간 누각에 들어서니 바라보는 풍경이 맑구나
뜬구름 같은 세상 이에 노니니 참으로 큰 행운일세
술을 청하여 금방 갠 경치의 부(賦)를 짓는 것도 무방하리
[위의 시는 왕년에 산에 가서 놀 때의 즐거움을 기록한 것이다.]

깊은 산속 맑은 달 아래에 외로이 서있는 정자에서
확트인 처마를 유독 좋아하니 밤기운이 맑구나
끝까지 다 읽어 남은 내용 하나 없으니
글을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는데 공부에 흐리고 갠날을 가리랴
[위의 시는 정자에서의 흥취를 읊은 것이다.]

남쪽에 떨어져있는 팔장정에 한가로이 은거하니
사람과 거문고소리와 시가 한결같이 맑구나
산음(山陰)에서 흥취 타는 날을 헤아리지 못하니
장기(漳氣)서린 강가의 가을비는 어느 때에 맑아질까
[위의 시는 지난 날의 회포를 읊은 것이다.]

2년 동안 취옹정자에 머물렀더니
산 절로 높디높고 물 절로 맑디맑다
이 한가로움 속에 참 즐거움이 있는 것을 깨달았으니
술동이 벗삼아 술 마시며 가을 맑은 정취 구경하네
[위의 시는 이번 가을에 관청에 기거할 때의 흥취를 기록한 것이다]
갑신(甲申, 1604, 선조 37) 가휴(可畦) 조익(趙翼) 쓰다[稿]
(趙翊, 『可畦集』 卷5, 詩○澤畔錄, 「和寄金使君希元養性堂韻」.)

천년동안 모범된 주자 정자를 우러르니
새로 단 양성당 판액에 마음이 맑아지는 듯하네
세상살이가 풍파가 많다는 것을 누가 알리오
산중에는 다시 구름 걷히네
남긴 터전을 정리하고 작은 정자를 지었더니
천지 한 구역의 경치가 더욱 맑아지네
백년을 굽어보고 우러려도 부끄러움 없고
청산을 오래 바라보다가 늦은 날씨가 갠을 보도다
갑진(甲辰, 1604, 선조 37) 가을 진산(晉山) 소광진(蘇光震)

사계(沙溪) 서쪽 언덕에 만안(晩安)정자를 지어
천성을 수양하는 연래에 사계 물이 다시 맑아지네
문노니 한가한 틈에 무슨 일을 하리오
꽃 찾아 버들따라 봄날을 쫓아가네
갑진(甲辰, 1664, 현종 5) 홀로 은거하던 날 송간(松巖) 이단하(李端夏) 쓰다[稿]

숨어살기는 정자하나면 족하니
늘그막에 마음자취 함께 맑음이 기뻐라
천지간에 술게 날고 고기 뛰노는 자연을 구경하며
구름 열고 바람 잔잔하니 이 맑음이 좋구나

여러 봉우리들 옥을 깎은듯이 우뚝우뚝 서있는데
세상 밖에서 은거하니 풍물들이 맑게 보이네
물이 찰찰 흐르는 모난 겨울 연못에
푸른 하늘 하얀 구름 그림자 맑게 비쳐 아름답네
을사(乙巳, 1605, 선조 38) 저무는 여름에 후학(後學) 심광세(沈光世)

옛날 송나라 제현들이 지방 군과 주에서 쇠하였는데
그 학문 바른 맥이 동방 우리나라로 전해왔네
하늘이 율곡을 낳아 뜬구름 같은 날이 흘렀고
달이 우계 성훈선생을 돌보시어 한수에 가을 날 이르렀네

과거시험장 높은 선비 다른 학설을 주장함이 아니니
예설가(禮說家)와 선각자(先覺者)가 모두 동류(同流)들일세
한 마음으로 임금 섬기면 천릿길도 가벼이 여기는데
그대와 헤어져 남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온갖 수심 일어나네

가을바람이 파주의 노형을 더욱 생각나게 하니
아득하고 아득한 셋별은 하늘 한 구석에 있네
외로운 기러기 남쪽으로 날아왔다가 낙엽보다 먼저 떠나고
편지를 북쪽에 부치고나니 다시 슬픈 가을이여라

스스로 세상을 놀라게 함이 선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시국을 바로잡는 데 제일류가 되기를 부탁하고 바라네
충용(仲容)을 만나려고 금마군에 찾아왔지만
만나자 곧바로 헤어지니 사람 근심만 깊어지는구나

홍천경(洪千璟) 쓰다[稿]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들판에 정자를 지으니
주인 늙은이 마음과 발자취 모두 본래 깨끗하다네
세간의 부정한 말이 어찌 일찍이 여기에 이르겠나
때때로 농부와 비가 올지 날이 겹치 이야기한다네

그윽한 곳을 찾으려 자주 수심 정자를 찾으니
구름 그림자와 하늘 빛 한가지로 맑구나
잠시 작은 배를 노저어 모래톱에 정박하니
평평한 수풀에 잦던 비가 아직 개지 못했구나

병오(丙午, 1606, 선조 39) 선달[殘脫] 상촌(象村) 신흠(申欽) 정선하여 지음[凍艸]
(申欽, 『象村稿』 卷19, 七言絶句, 「次金沙溪連山別業韻」.)

본성(本性)을 기르는 것과 꽃을 기르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니
나의 벗가운데 귀한 것을 두루 통하는 것을 비유하면 될 듯하네
청강 최학사가 벼슬을 내려놓고 은거하는 곳이니
범로(泛老)와 유명한 재상들이 문필을 남긴 곳이라오

식구가 항하여 오매 새옹(塞翁)의 말과 같고
동산수물은 전란 후에 모두 양을 잃은 것[亡羊] 같구나
그대가 편액을 걸고 중수(重修)한다는 계획을 들었으나
천리 먼 거리에서 서로 생각만하지 길이 멀리 막혔도다

만력(萬曆) 기원(紀元) 경술(庚戌, 白狗) 백룡(白龍) 기망(既望)에 장수후인(長水後人) 황력(黃嶺)
지음[稿]

(黃赫, 『獨石集』, 七言律詩, 「寄題金希元連山養性亭」.)

곤궁하여 아래에 있으나 그 학문은 밝으니
이말을 어떤 이유로 선생에게 고할손가
서명과 태극도를 펼치는 곳이니

염계와 이정선생 같은 제현들이 서로 마주 보고 정을 나누네

임술(壬戌, 1622, 광해군 14) 맹동(孟冬, 10월)에 서하(西河) 후학(後學) 임숙영(任叔英)

갑자기 돌아오시더니 또한 호연하게 돌아가시니

고향엔 가을이 가득하고 아주 흥겨워 날아오를 듯 하네

성군께서 즉금에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시며

역마에게 숲속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였다네

평생 동안 스승과 벗들 사이에 원원이 이어졌는데

임금 경연과 세자 서연에서 함께 토론하기를 계획하네

이번 휴가로 길게 떠날 생각일랑 하지 마오

출발하는 역마길 모습은 임금님 특별한 은혜라네

계해(癸亥, 1623, 인조 1) 중추(仲秋, 8월) 영가후인(永嘉後人) 권진기(權盡己)

관직을 버리고 물가의 정자로 돌아오니

마음 씻고 우뚝 앉으니 청량함이 더할 수가 없네

한가로이 조물주를 살펴보고 일이 많음을 알았나니

하루 흐리면 하루는 다시 맑아지게 하네

산 아래엔 시내 있고 시냇가엔 정자가 있는데

시내 즐고 모래 희어 맑은 물에 다 비치네

시냇가서 냇물 소리 듣기 좋아 앉았더니

시냇가 달 떠오르고 비는 맑게 개었다네

송정(崇禎) 무진(戊辰, 1628, 인조 6) 중동(仲冬, 11월) 김상헌(金尙憲)

(金尙憲, 『淸陰集』 卷2, 七言絕句, 「次金沙溪丈養性亭韻」에 일부 수록.)

만권 책에 제비가 꽃혀 있는 한 초가정자에

노인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맑구나

주역에 붉은 점을 찍는 것 외에는 다른 일 없으니

손으로 가을 창 밀치고 저녁 풍경 구경하네

내 본성을 수양한다는 것으로 정자 이름 지으니
문득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 작은 찌꺼기가 맑아졌네
청년·학동들과 소풍 나가 목욕하고 시 읊고 돌아오는 길에
늦게 피는 꽃과 그윽한 풀들이 봄 풍경을 보여주네

산은 고요하고 산중 새는 정자 근처에서 지저귀는데
서늘한 저녁에 베게 베고 누우니 대나무 바람소리 청량하구나
농가에서 꽃 재촉하는 비 내리기를 기다리거니
부산하게 지저귀는 비둘기야 맑은 날 오기를 부르지 마라
기사(己巳, 1629, 인조 7) 초추(秒秋, 9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삼가 지음[拜稿]
(李廷龜, 『月沙集』 卷18, 倦庵錄下, 「養性亭爲沙溪丈次卷上韻」.)

흰머리 되어 돌아온 시냇가 정자
여기만 오면 심신(心身)이 한없이 맑아지오
눈에 가득 서책들 읽다가 지루하면
잠깐 정원 나들이 소폭(小幅)의 산뜻한 경치 감상하오

옛과 지금 궁구하며 홀로 문 달고 있노라면
다시 산과 시냇물 분외의 맑은 선물
한가한 시간 기막힌 경지 뭐냐고 묻는다면
밝은 창가 궤안에 기대 막 갠 날씨 대하는 것
기사(己巳, 1629, 인조 7) 모춘(暮春, 3월) 문생(門生) 덕수(德水) 장유(張維)

대나무 꽃은 성긴 울타리와 띠를 닮은 정자에
도서가 사방에 있으니 매우 맑고 시원하구나
봄이 와서 때에 맞추어 비가와 만물을 적시니
산새 지저귀는 소리 즐겨 들으며 저녁 경치를 즐기네

백년 동안 이 수물 정자에 깃들었거니
정자 아래 시내와 산이 책상을 마주해 맑도다
고요속을 향해 사물의 변화를 시험삼아 살펴보니
몇 번의 비바람에 따라 흐르고 갠 날이 바뀌더라

기사(己巳, 1629, 인조 7) 늦가을에 문생(門生) 오천(烏川) 정홍명(鄭弘溟)
([기암집] 칠언절구 중 「次沙溪先生養性堂卷中韻」.)

시냇가 산 앞에 초가정자 하나 있는데
정자에 사는 사람은 옥병(玉壺)처럼 맑구나
연꽃 핀 못가에는 대나무 셋길이 빙 돌렸는데
다시 밝은 창에 기대어 해질녘의 풍경을 구경하네
연못 위 정자에서 옛 서책을 읽으니
가을 기운 정자에 가득하매 사람 또한 청아해지네
전날 밤 구름 끼고 내린 비에 여울소리 요란하더니
대나무 그늘과 소나무 그림자 이 산 층을 맑게하네

계묘(癸卯, 1603, 선조36) 9월 종말(宗末) 용계(龍溪) 김지남(金止男)

깊숙히 사는 일 상상하다 갑자기 생각 끊겨
오경 사이에 잠이 덜깼채 책상앞에 다시 앉았네
계묘년에 써준 시를 놀라 다시 펼쳐보니
사계선생의 기쁜 소식을 글을써서 멀리 전했건만

책 상자 지고 따라 가겠다는 빈 약속만 하고 있네
문두드려 참방할 해 언제나 될까

오직 어젯밤 중추에 뜬 달만 생각하여
맑은 달빛 나누어 바라보며 함께 잠 못이루네

송정(崇禎) 기사(己巳, 1629, 인조 7) 중추(仲秋, 8월)에 김지남이 다시 지어올림

동산 수물 뛰어난 곳에 우뚝한 정자를 세우니

버드나무 달, 오동나무 바람에 이곳이 더욱 맑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둬에 있으니

계룡의 빼어난 경치 문체가 새로이 산뜻하도다

경오(庚午, 1630, 인조 8) 증춘(仲春, 2월) 문생(門生) 양경우(梁慶遇)

※ 『遜巖書院誌』: 「賡性堂題詠」; 金尙容, 『仙源遺稿』 上, 七言絶句, 「次韻奉呈希元尊兄」; 鄭暉, 『守夢集』 卷1, 七言律詩, 「寄金典簿希元丈」; 趙燭, 『可畦集』 卷5, 詩○澤畔錄, 「和寄金使君希元賡性堂韻」; 申欽, 『象村稿』 卷19, 七言絶句, 「次金沙溪連山別業韻」; 金尙憲, 『清陰集』 卷2, 七言絶句, 「次金沙溪丈賡性亭韻」; 李廷龜, 『月沙集』 卷18, 倦應錄 下, 「賡性亭爲沙溪丈次卷上韻」에 수록.

※ 번역: 위창복